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확립

Developing Business Ethics Based on The Bible

정충영

- I. 서론
- II. 기업윤리의 이론적 검토
- III.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토대
- IV.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
- V. 결론



정충영(鄭忠泳),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대구 지역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책임자, 대구 정사협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Abstracts

This paper is to establish business ethics on the basis of the Bible. Although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immorality of business stem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itself, it would rather lie in the lack of manager's ethical consciousness.

The problem of sources on which business ethics is founded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but it is still at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individual belief.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the ground of business ethics in Bible. Bible has influenced not only the Western culture, but also every kind of society today, and now Korea has about ten million Christians whose value systems are based on the Bible. So it would be rational to establish the ground of business ethics on the Bible.

To do this, we are going to review the main concepts about business ethics in the Bible, which we can apply to the business management. Because we think the immorality of business is partly due to the misconception about business management, we will review them, then redefine some problems in business management in the Biblical point of view. To apply and practice the business ethics based on Bible, we present Ten Commandments which are familiar to Christians as a guide. Then we discuss some problems to establish business ethics and for further study.

I. 서론

본 연구는 성정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교환하는 경제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기업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물적인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간의 도덕적 관계를 다루는 사회적 기관이다. 기업이 중시하는 이윤의 획득, 지속적인 성장 및 기술 진보 등은 모두 윤리적 차원을 갖는다. 예컨대, 자원의 고갈이나 공해 문제, 작업 환경에서 비롯된 갖가지 문제, 고객의 안전 등은 모두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생활 전반이 기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기업의 영향력은 날로 높아질 것이므로 기업의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 행태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

최근 문민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부정 부패의 척결 차원에서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고 윤리 규정이 입법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비윤리적 혹은 비도덕적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직업 중 기업가가 가장 비윤리적이며 기업이 가장 비도덕적인 사회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도 기업윤리헌장이 발표된 바 있으나 전혀 이를 중시하는 기색이 없었으나 이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기업의 윤리 확립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기업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그 준거가 필요한 바 이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윤리란 원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자유 공모 과제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업윤리는 응용 윤리에 속하며 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행태에 대한 선악, 정오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할 것인가를 다루게 된다. 정의 이론, 상대주의, 의무론, 목적론, 공리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가지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그 어느 것이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준거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악의 구분이나 옳고 그름의 구분은 각 개인이 지닌 신념 혹은 가치관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윤리관의 확립의 근거를 성경(Holy Bible)에서 찾고자 시도하기로 한다. 물론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지만 성경이 서구의 문명뿐 아니라 세계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지 기독교의 경전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만민이 읽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1천만 기독교도들이 이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회나 기업에의 영향력은 결코 경시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윤리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확립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성경에 제시된 개념 중 기업윤리의 토대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윤리를 전개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띤다.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확립이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 장의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윤리 및 기업윤리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하고 III 장에서는 기업윤리의 전개를 위해 성경의 중요 윤리 개념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를 기업 경영에 여하히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피며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실천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마지막 장인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함께 성경적 기업윤리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기업윤리의 이론적 검토

1. 기업윤리의 의의

일반적으로 윤리학이란 인간에게 무엇이 선(good)이며 무엇이 옳은 가(right)에 관한 연구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 선과 악,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나 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¹⁾ 따라서 윤리는 추구하여야 할 목표(goal)가 무엇이며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

윤리란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치”를 뜻한다. 윤리와 도덕의 구분은 대단히 애매하지만 도덕을 이론적인 면에서 논할 때는 이를 윤리라 하고, 실천적인 면에서 다룰 때는 도덕이라 함이 일반적이다. 희랍의 스토익 철학자 디오게네스에 의하면 윤리는 인간 행동의 기본을 논하나, 도덕은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행동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단어를 엄격히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인 이론 측면을 다룰 때는 윤리라 하고 실천적인 행동 측면을 다룰 때는 도덕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1) K.E. Goodpaster, "Business Ethics: The Field and the Course", in W.M.Hoffman, J.M. Moore and D.A. Fedo(ed.), Corporate Government and Institutionalizing Ethics, Toronto:Lexington Books, 1983, p.289.

기업윤리란 응용 윤리(applied ethics)의 한 부류로서 선과 악, 혹은 옳음과 그름이 기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전통적인 윤리 분야의 연구 성과를 기업 경영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시켜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혹은 선이나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선정하거나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²⁾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난은 기업이 부의 축적 과정에서 자유 경제질서를 무시하였다는 것과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야 할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기업 행동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이다.³⁾

기업윤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⁴⁾

- (1) 기업윤리의 준수는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 기반이 된다.
- (2) 기업의 장기적 경영 성과나 조직 유효성의 증대는 기업윤리의 준수 없이는 불가능하다.
- (3) 기업윤리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 규범이 될뿐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취감을 충족시켜 준다.

2. 윤리학의 흐름

기업윤리는 지금까지의 윤리 연구의 흐름을 살핌으로써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서구 철학에서의 윤리 연구는 목적론과 의무론이라는 두 큰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⁵⁾

2) Bartels(ed.), *Ethics in Busines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1963. p.116.

3) 신유근, "기업윤리와 경영 교육", 한국경영학회 편, 「한국의 기업윤리」, 세경사, 1992, pp.21-76.

4) 신유근, "기업윤리와 경영 교육", 한국경영학회 편, 1991년도 추계특별연구발표논문집, 「기업윤리와 경영교육」, pp.25-27.

5) 박봉배 외, 「기독교 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박봉배, 「그리스도인의 윤리」, pp.12-30.

목적론적 윤리(teleological ethic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간은 그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가 존재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실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⁶⁾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목표 추구성 및 이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어떤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선을 가져오느냐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므로 결과론적 윤리라 부르기도 한다.

다른 하나의 흐름인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는 인간 행동의 결과 대신에 행위자의 심성과 의무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인간 행동의 동기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⁷⁾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뿐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 두 흐름과는 달리 Richard Niebuhr와 William F. Frankena는 새로운 형태의 제3의 윤리를 주장하였다.

Niebuhr는 목적론적 윤리를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간에 비유하고 의무론적 윤리를 시민으로서의 인간에 비유하면서 바람직한 새로운 윤리 형태는 책임적 윤리(responsible ethics)라 하고 이를 응답자로서의 인간(Man, the Answer)이라 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응답자(responder)로 파악하고 인간의 응답 여부가 바로 그의 책임이 되며 올바른 응답이 윤리적 과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올바른 응답이란 가장 적합한 것(the fitting)이며 개별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그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목적론적 윤리는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 내지는 목적이

6) H. Richard Niebuhr는 그의 저서 *The Responsible Self*에서 이런 형태의 윤리를 창조자로서의 인간(Man, the Maker)이라 하였다.

7) H. Richard Niebuhr는 이를 시민으로서의 인간(Man, the Citizen)이라 하였다.

나?”가 근본적인 물음임에 반해 의무론적 윤리는 “무엇이 법이며 나의 삶의 법은 무엇인가?”가 근본적인 물음이 된다. 그러나 책임적 윤리에서는 “무엇이 진행 중인가?” 하는 상황 이해를 중시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응답 가능성, 상대방의 행동 이해, 상대방의 응답 기대, 사회적 유대성으로서의 공동체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Frankena는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3의 윤리 형태인 혼합된 의무론적 윤리(mixed deontological ethics)를 제안한다.⁸⁾ 이것은 덕행과 같은 선의 총합을 확대하려는 요구와 공리성의 원칙 및 정의의 원칙을 혼합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정의의 원칙이 공리성의 원칙보다 더 중시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복지 증진이나 악의 감소를 목적하지 않는다면 참된 정의가 될 수 없다면서 덕행이나 선행(beneficence)을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의 정의의 원칙은 인애(benevolence)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Frankena의 제3의 윤리는 전통적인 두 가지 형태의 윤리의 통합을 모색한 것이다.

3. 기업윤리의 판단 기준

앞에서는 윤리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으나 실제 윤리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다음의 5가지 기준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1) 정의 이론(Justice Theory) 기준: 이 이론은 사회의 혜택과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규칙과 법률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는다. 이 이론에는 분

8) William K. Frankena,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포함되며 공정한 대우, 규칙의 공정한 관리, 공정한 보상, 공정한 처벌, 정당한 절차들이 지켜져야 할 것을 주장한다.

(2) 상대주의(ethical relativism) 기준: 행동의 도덕성(morality)을 판단하는 보편적(universal) 표준이나 표준들의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 다른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한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된다. 그러므로 윤리적 상대주의에서는 한 개인이나 한 사회가 옳다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회에서 옳은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옳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⁹⁾

(3) 의무론(Deontology) 기준: 행위는 그 결과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의의 요구를 만족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경하기 때문이거나 그것을 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¹⁰⁾ 칸트에 의하면 도덕 명령은 절대적이며 비조건적이므로 결과에 관계 없이 우리가 순종하여야 한다. 그는 단 하나의 절대적 의무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한다.

(4) 목적론적(Teleology) 기준: 이 기준은 보이지 않는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을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해 판단하려는 입장으로서는 행위의 윤리성을 행위의 객관적 결과에 의해 판단한다.¹¹⁾ 목적론은 이기주

9) W. Michael Hoffman & Jenifer Mills Moore, *Business Ethics: Reading Cases in Corporate Morality*, 2nd ed., McGraw-Hill, 1990, p.5.

10) W. Michael Hoffman & Jenifer Mills Moore, *Business Ethics: Reading Cases in Corporate Morality*, 2nd d., McGraw-Hill, 1990, pp.14-15.

11) V. Barry, *Moral Issues in Business*, Belmont, Calif: Wordsworth Publishing Co., 1983, p.12.

의와 실용주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기주의는 여러가지 행위의 대안들 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최대화하는 행위를 선택하지만 실용주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되게 하는, 즉 일반선을 지향하는 행위를 선택한다.¹²⁾

(5) 공리주의(Utilitarianism) 기준: Bentham에 따르면 공리주의에서는 행위나 의사 결정의 평가에는 행위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사람은 악을 이길 선의 전체 균형을 극대화하거나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의 선을 추구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¹³⁾

(6) 이기주의(Ethical Egoism) 기준: 모든 사람은 언제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평균적인 선을 최대로 촉진시키도록 행동하여야 한다.¹⁴⁾ 이 관점에서는 그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는 모두 비도덕적인 것이다. 이 말은 이기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이기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믿는다. 이들은 단지 단기적 이익 대신 장기적인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한다.

4. 기업윤리 기준으로서의 성경

12) 신유근, “기업윤리와 경영교육”, 한국경영학회, 1991년도 추계특별연구발표논문집, 「기업윤리와 경영 교육」, 1991년 10.19., pp.1-66.

13) W. Michael Hoffman & Jenifer Mills Moore, *Business Ethics: Reading Cases in Corporate Morality*, 2nd ed., McGraw-Hill, 1990, p.11.

14) W. Michael Hoffman & Jenifer Mills Moore, *Business Ethics: Reading Cases in Corporate Morality*, 2nd d., McGraw-Hill, 1990, pp.8-9.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미가 6:8).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사랑에 근거하여 윤리적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성경은 이러한 윤리적 행위의 표준을 제시한 경전이다. 성경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를 이상으로 한다(아모스 5:24).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뜻에 비취본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다”고 규정짓는다(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을 효과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다.¹⁵⁾

하나님은 선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이에 응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거듭난의 과정을 통해 불의를 벗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이 제시하는 내적 일관성은 “궁극적인 실재”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응답이다. 이 신앙체계는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정리되며 이 신앙체계는 우리의 의식차원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득되어야 한다.¹⁶⁾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과 행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이므로 모든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¹⁷⁾ 기업 경영 행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서구의 문화는 실제 기독교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자본주의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기

15) Myron D. Rush, “Biblical Principle Applied to Management”, in Richard C. Chewing(eds.),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pp.46-60.

16) 김중기, “성서윤리”, 박봉배 외, 「기독교 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106.

17)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업의 윤리 기준으로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낯설거나 의외의 것이 아니다.

Donald A. Hay는 기업윤리를 성경적 원리에서 찾고자 할 때의 접근법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¹⁸⁾

- 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기준의 탐구
- ②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 ③ 윤리적 행동을 위한 동기 부여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견해가 존재한다.

① 사회 원리는 성경에서 유도될 수 없다는 견해: 이것은 현대와 과거와는 상황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문맥의 차이에 의한 해석상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보편성과 통시적 적용을 부인하는 견해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성경은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구약성경의 직접적 적용을 주장한다. 신약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내에서만 적용 가능할 뿐 비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사회에 윤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의 저급한 행동을 대상으로 한 율법이 차선책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¹⁹⁾ 그러나 이 견해는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 오늘날의 세계에 옮겨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실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III.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토대

1. 기업윤리의 구축을 위한 성경의 개념

18) Donald A. Hay, *Economics Today*, Appolos, 1989, pp.62-63.

19) Donald A. Hay, *Economics Today*, Appolos, 1989, pp.62-63 참조.

1) 생명 보존과 창조 질서 윤리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창 1:27, 2:7)는 창세기의 기록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위에 있음과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한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첫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 였다. 하나님은 이브를 ‘돕는 배필’로 만드심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상호 관련성을 갖게 하시고 인간의 경제가 수립되게 하였다. 가족은 개성의 차이성, 상호관계, 동일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나, 구성원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성, 상호간의 사랑, 집단에 대한 충성심, 서로간 및 지역 사회에 대한 공동 의무로서의 봉사 등을 가정을 통해 알게 하신다. 인간간의 이러한 사회적인 성질 때문에 전문화, 상호의존성 및 교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교환이 바로 기업의 존재 이유가 된다.²⁰⁾ “생육과 번식”의 계명에 이어 “땅을 정복하고(subdue)”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rule)”는 명령이 추가되었다(창 1:28). 이 명령은 첫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리며(cultivate) 지키라(keep)는 것으로 이어진다(창 2:15). 다스린다는 단어의 원어는 abad로서 경작한다(till) 또는 일한다(work)는 뜻을 가지며 성경에서는 섬긴다(to serve)는 단어로 번역된다. ‘지키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shamar로서 지킨다(to keep), 돌본다(to watch), 보존한다(to preserve)는 뜻을 갖는다. 그러므로 앞의 명령과 관련지워 생각하면 이 명령은 앞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라 인간은 수탁자(trustee)의 위치에 선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창조 질서의 준수와 사회와 인간의 삶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허락을 받은 것이다.

20) Kenneth S. Kantzer, “God Intends His Precepts to Transform Society”, in Richard C. Chewing (eds.),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pp.31-32.

2) 율법의 윤리

구약은 예수 탄생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구약의 율법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회 생활을 위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예언서는 그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약의 모든 윤리적 가르침은 십계명으로 요약된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십계명을 기업윤리를 전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사용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사랑의 윤리

신약은 예수의 행적과 그 사도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윤리적인 교훈만을 따로 떼낼 수 없다. 그의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복을 위한 그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한 교훈에 한정되지 않고 그의 온 생애 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 극치이다. 그의 생애와 교훈이 분리될 수 없듯 그의 가르침은 신앙과 윤리로 함께 어울려져 있다.

예수님의 윤리적인 교훈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에 따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그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다.²¹⁾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1) 김중기, 「성서윤리」, pp.82-125, (박봉배 외, 「기독교 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요 13:34-35)는 계명을 주신다.

4) 청지기 윤리

성경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한다(고전 10:26, 시 24:1, 시 50:12).

인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청지기(steward)에 비유한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선관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관리할 책임을 진다.²²⁾

5) 섬기는 종의 윤리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마 20:28).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요 13:13-15) 우리가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셨다. 종은 주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섬김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섬김의 원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마 7:12)이다. 그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하심으로써 섬김의 대상은 지극히 낮은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들임을 밝힌다.

6) 하나님 나라의 확장

22) 마 25:14-30의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말기고 잤다”, “회계할 새”라는 단어는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마 6:10). 이것은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는 것도 바로 이 하늘나라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모든 활동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며 그 핵심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롬 14:17)이다.

2. 십계명의 윤리

1) 십계명의 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친 것으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예수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고 “나는 율법(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명을 요약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마 22:36-41).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가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적 존재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왜곡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용인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은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이다. 이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십계명의 이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말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라도 절대자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그에 의해 생명이 보존되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를 대신하는 모든 것은 거짓 신이며 우상이다. 인류는 과학이나 기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이를 섬기며 경배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며 부의 축적이 인간을 해방하리라 믿기도 한다. 그러나 창조자는 한 분 하나님 뿐이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모든 것은 우상임을 말한다. 우상 숭배란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부수적인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탐심이 우상이 된다(골 3:5). 예수는 하나님 대신 재물(mammon)을 섬기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다.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야말로 몸의 등불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마 6:19-25).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수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해지는 각종의 불의를 금한다. 성전을 “강도의 굴혈”(마 21:13)로 만들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에 불의가 자행되기도 한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의 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한 것”(출 20:9)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일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일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로 오인되고 있으나 예수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하심으로 일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친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으므로 일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인간은 단지 생산의 노동 요소로 전락하게 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며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계명은 인간이 힘써 일한 뒤에는 일에서 놓여나 쉼을 얻어야 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가정을 돌볼 여유를 갖게 한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그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란 약속을 지닌 계명이다. 조상의 은덕을 잊지 말 것과 좋은 전통을 존중할 것을 명한다. 바울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 6: 1)고 말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께 하듯 순종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부모는 나를 낳은 가시적인 창조자이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존경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와 감사를 배운다. 조상들이 모두 부모로 인정되듯 나이 많은 이들은 부모로 공경되어야 한다. 그들은 직접적인 부모가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을 낳았으며 그 이웃은 우리가 내 몸같이 돌보아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 부모들이 오늘의 사회를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찌니라.” 살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권

리를 파괴한다. 예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미움이나 욕설, 경멸은 살인과 같음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찌니라.” 이것은 성을 농락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마 10:6).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생물적인 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영적인 관계에 까지 확장하고 있다. 간음은 가정의 파괴를 의미하며 인간의 가치를 동물적인 것으로 끌어내린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창 2:18)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뿐 어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 차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각 성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이 계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청지기로서 관리할 몫을 갖는다. 도적질은 하나님의 위탁을 거부하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위탁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 삶을 풍성케 하도록 맡겨진 자원을 활용하며, 공정하게 분배할 책임을 가진다. 예수는 주인의 부재 중에 종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마 24:45-46) 이것은 유한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울에 처하리니”(마 24:48-51) 왜냐하면 때를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 것이 도적질이기 때문이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거짓말 대신 정직과 신실성을 지닐 것을 말한다. 사람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므로(약 3:2)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온 몸이 더럽혀지고 생의 바퀴마저 불살라지게 된다(약 3:1-12).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거짓말과 함께 저주의 말도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지 않아야 한다(약 3:9-1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제10계명: “네 이웃을 탐하지 말찌니라.” 이것은 훈련되지 않은 욕망을 금한다. 예수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눅 12:15) 귀중한 인간의 생명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과 무관한 것이다. 탐심이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서 우상 숭배가 된다(골 2:5). Zoller는 탐욕이 십계명에 열거한 모든 계명을 범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²³⁾ 이것은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의 부를 늘리며(미 2:2) 임금을 착취하며(약 5:4) 불의의 값을 사랑하게 되며(벧후 2:15)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 놓게 한다(전 5:13, 눅 12:16-21).

Ⅳ.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

1. 기업의 비윤리성

23) John Edward Zoller, The Ten Commandments, (권명달 역, 「십계명 해설」, 보이스사, 1990, p.18.)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인간의 탐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에 표면화되는 것은 기업 자체가 지닌 비윤리적 성격에 근거한다. 이하 몇 가지 잘못된 개념을 지적한다.

1) 기업 목적으로서의 이윤과 이윤 동기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는 효율성의 제고와 적극적인 동기 부여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의 탐욕이 기업 이윤이란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기업의 많은 비도덕적 행위가 이윤의 획득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윤 동기(profit motive)와 탐욕(greed)의 구분, 자기 이익(self interest)과 이기심(selfishness)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기업은 불가피하게 자본가의 착취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²⁴⁾ 개인의 활동이 상당한 부분 재물의 획득과 관계가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듯 기업도 그 목적을 이윤의 획득 또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것은 편협한 주장이 된다.

셸던(sheldon)은 기업은 이윤 동기보다 서비스 정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⁵⁾ 그에 의하면 기업 활동은 공공이익과 공공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Eells는 기업의 자기이익 추구하고 공공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는 중도적 회사(well-tempered corporation)의 모델을 제시하고²⁶⁾ 전통적 이윤 극대화 목표는 그 협소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존성을 약화시키며 목표의 확대성과 포괄성을 통해 이윤 책

24) Kenneth S. Kantzer, "God Intends His Precepts to Transform Society", in Richard C. Chewing (eds.),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pp.31-32.

25) Oliver Sheldon, *The Philosophy of Management*(1924),('기업의 목적과 책임', 高田 肇 著, 오종석 역, 삼영사, 1982, pp.139-140에서 재인용.)

임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⁷⁾

2) 조직의 목적지향성

기업이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능률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설계 운영하려고 할 때 그 조직은 목적 지향적이 되며 기업윤리 등과 같은 내면적 가치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된다.²⁸⁾ 조직의 가치 체계가 지나치게 성과지향적이며 윤리적 자기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경우 도덕적이고자 하는 개인의 주장은 목표 달성의 지장물로 간주되며 기업 조직은 이윤 추구 속성과 결합되어 비윤리적 불법적 기업 행태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도덕적 수준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중첩되면 기업의 도덕성은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3) 기업 권력의 무통제성

능률성과 시장 지배의 동기에서 비롯된 거대 기업과 기업 집단의 출현은 기업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한다. 거대 기업은 자신의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회 비판에 적대적 자세를 취하며 이는 기업과 사회와의 사이에 갈등과 긴장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사회는 이에 대항하여 여러가지 규제 수단을 만들어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 및 기업 권력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견제한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²⁹⁾ 그러나 현대의 거대한 기업의 권력은

26) 신유근, 「기업과 사회」, 경문사, 1986, pp.173-174에서 재인용.

27) William C. Frederick et al., *Business & Society*, McGraw-Hill, 1988, p.39.

28) Thomas Donaldson, *Corporations and Morality*, 1982, (유장선 역, 「기업윤리」, 법문사, 1985, pp.264-265.)

29) Heilbroner, R. L., *In the Name of Profit*, Doubleday, 1972, chap6. 참조.

정권과 결탁하여 그 부정한 권력의 힘을 휘둘러 더욱 부와 권력을 손아귀에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막강한 힘을 견제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힘은 비도덕적 기업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한다.

4) 대립적 관계의 전제

기업의 이론이나 의사결정은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노와 사, 감독과 작업자, 경쟁 기업간, 대기업과 그 하청업체 등의 관계가 그 예가 된다. 이러한 대립적 관계에서는 일방이 타방에게 힘을 발휘하여 강제를 행하려 한다. 이 대립적 관계에서는 패자밖에 없으며 그 성과나 능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예수가 제시한 「죽으로 받으며, “버림으로 얻는” 진리와 전혀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 성경에 비춰본 기업 경영의 과제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과제를 살핀다.

1) 기업의 목적과 사명

(1) 경영 전략과 기업의 사명

기업의 전략이란 조직을 그의 환경에 적응시키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의 기업 전략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성장과 유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기업은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듯 기업은 어지러운 세상을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 사명을 갖는다. 이것은 바

로 기업이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롬 14:17).

드러크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기업이 사회적 봉사기관이라 한다면 기업의 초점은 봉사에 맞추어야 한다. 봉사는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욕구의 이해와 이의 충족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죄의 행위를 반영하거나 조장하는 제품이나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기업의 전략에 교묘하게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Keith David는 기업이 사회의 다양한 욕구, 즉 노인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미술 전시회를 후원하고 장애자를 고용하고 교육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³⁰⁾

(2) 기업 목적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 목적을 능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영이 이루어진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기업 자체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임을 부정하고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그들의 목적을 표방하여 마치 사회 봉사를 위한 기관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나 의사 결정은 이윤이라는 기준을 따른다. 이윤은 ① 기업의 시장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측도가 되며 ② 기업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며 ③ 생산을 위해 사용된 비용의 보상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저축이다.³¹⁾ 이러한 맥락에서 Levitt의 “경영자는 이윤 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협과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이란

30) Keith David, "The case for and against Business Assumption of social Responsibilit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June 1973, pp.312-322.

31) 한정화, 「성경적 기업윤리」, 제7회 기독교학술발표회, pp.44-59.

주장이 가능하다.³²⁾ 그러나 성경에 비취 판단하면 이윤이 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듯 기업의 목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요 10:10). 이윤은 기업의 이러한 수행에 따른 결과물이며 지속적인 시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2) 투입과 산출

(1) 자원의 투입

오늘날의 경제문제는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문제와 소득 분배의 문제로 요약된다.³³⁾ 이 두 문제는 모두 도덕적인 문제로서 윤리적 명제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해 자원의 유한성이 더욱 명백하게 되었다. 임금의 양등은 자원의 소비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결론을 내리게 한다. 경제력 향상과 기술 발달로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급속도로 단축되어 자원의 소비가 촉진된다. 비용 기준의 의사 결정이 주축을 이루는 현실에서는 자원의 귀중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가꾸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진 인간은 기업의 의사 결정에서 자원의 회소성과 자원의 능률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32) Theodore Levitt, "The Dangers of Social Responsibilities", *Harvard Business Review*, Sept.- Oct. 1958, pp.41-49.

33) Donald Hay,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Socialism*, (김정식 역, 자본주의 비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0, pp.21-31.

(2) 기업의 산물

기업은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명을 갖는다. 이 사명은 기업의 산출물인 유무형의 재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유무형의 재화를 통한 고객의 만족을 주요한 사명으로 가져야 하며 수익이나 이윤은 고객에게 제공한 만족의 대가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윤을 목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의 생산에만 치중하거나 낭비의 요소가 많거나 비도덕성을 조장하는 제품의 생산은 지양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윤의 적음을 이유로 서민층이나 소외층의 필요 물품의 생산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공정과 통제

(1) 관리와 통제

경영 관리를 계획화 -> 조직화 -> 통제화라는 순환 과정으로 파악할 때 통제화란 목표와 실제의 결과를 일치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이 순환 과정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능률의 증대를 위해 수립된 루울이 존재하며 이 루울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는 비능률적인 것으로 단정지워진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역할을 좁은 범위의 루울에 제한시키는 경우 자칫 인간이 지닌 무한의 가능성을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게 결박하는 것이다. 인간의 현시적 및 잠재적 능력들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로 간주된다면 이는 비인간화 내지는 소외를 초래한다. 인간이 지닌 무한한 능력들이나 영성들이 물질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측정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물질적인 것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기계보다 열등한 평가를 얻게 될 것이다.

(2) 노동

오늘날의 노사관계는 쌍방이 대립적인 관계 하에 놓여 있다. 사용자

는 적은 임금으로 많은 노동력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은 적은 노동으로 많은 임금을 쟁취하려 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관계는 투쟁적 단계로 이행되었음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비능률을 초래하며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집단 행동, 이에 대한 강경 방침이 세워져 각종의 바람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노동이 경영자에게는 생산의 투입 요소로서의 노동력으로만 인식되는데 기인하며 노동자들에게는 일이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일은 단순히 생산의 투입 요소나 임금을 획득하는 수단 이상의 것이다. 일은 인간의 본분이며 삶의 보람과 관계된 것이며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휘하는 수단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용자는 자본으로, 노동자는 노동력으로 상대방에 봉사하며 이들의 협력된 힘으로 고객에게 봉사한다.

(3) 리더쉽

관리적 리더쉽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그룹 구성원의 업무와 관련된 작업을 지휘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37, p.468).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리더쉽은 작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업무를 행하는 인간으로서의 작업자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가 보여준 것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쉽(servant leadership)이다. 이것은 비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이름처럼 허약하고 복종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관심과 이기심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목표를 선택하는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쉽은 선한 관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여야 할 요구(demand)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의 요구와 일치시킴으로서 그의 요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리더쉽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며 행동을 통하여 리더가 그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함을 전달하려는 열정이다. 이러한 리더쉽은 작업장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작업자들에게 헌신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생산성과 효과적인 경영을 번식시킨다.(26)

그러므로 관리자로서의 리더는 영웅적인 감독자(take a charge hero)가 아니라 인간 개발자(developers of people)이어야 한다. 그들은 추종자들이 성공하고 번창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최대한으로 성공하게 된다.

4) 소득 분배와 이해관계자 집단

(1) 이해관계자 집단

경영에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란 정부와 거래처, 경쟁자와 같은 기업 외부의 집단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해집단간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이며 이해상충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관계에서 얻어지는 쌍방의 성과는 극히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협조적인 관계로의 이행은 먼저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세가 그 핵심이 된다. 성경은 먼저 줌으로써 비로소 받는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눅 6:38).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이다. 이러한 서로 줌에서 얻어지는 협조관계는 상대방을 강요하여 얻어지는 어떠한 것보다 장기적으로 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뇌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뇌물을 준다는 왜곡된 해석을 가져오기도 하지만³⁴⁾ 이 말의 의미는 윤리적인 인간으로서의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그것은 뇌물을 물리치는 것이다)을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의 분배

34) Gene R. Laczak, “Frameworks for Analyzing Marketing Ethics”, *Journal of Macromarketing*, Spring 1983, pp.7-18.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음식, 의복, 주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 음식(창 2:16)과 의복(창 3:21)을 마련해 주셨으며 광야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 율법서에는 가난한 이들도 수확물을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레 19:9,10, 신 24:19-22). 또 옷을 저당잡힌 사람이 밤에 입고 잘 수 있도록 옷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명령한다(출 22:26). 그러나 인간에게 무한정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십계명은 탐욕을 경고하며 예수는 탐욕을 간음이나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막 7:22).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창조물의 일부를 위탁하심으로써 그와 협력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자원들로 사회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물 중 얼마만큼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자원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직과는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의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보듯 생산에 투입한 자원의 양과 그 보상으로 기대되는 소득 사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일치가 중요하지 않다(마 20장).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아니라 일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³⁵⁾ 이9것은 봉사의 의미와 동일한 것이다.

5) 공해 및 환경 보전

드럭커는 기업은 환경의 산물이라 하였다. 이것은 기업이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필요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며 쇠퇴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기업 환경은 기업의 모태이다. 기업의

35) Donald A. Hay,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Socialism, (김정식 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1990,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pp.18-20.

생산물의 산출은 동시에 공해를 배출한다. 최근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공해 문제는 기업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단순히 제약 요인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꾸지 않으면 안될 보금자리로 간주하여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작하고 육성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태계는 동식물간의 순환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주고 받음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한 쪽의 성장은 다른 쪽의 도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익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 따라서 기업은 창조 질서를 따라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하나뿐인 지구와 인류를 보존할 수 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인류의 멸망과 직결되는 행동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단기적인 심판은 그가 속한 사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3. 성경 원리의 적용과 실천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기업윤리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성경에서 기업윤리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 개념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준수하여야 할 십계명을 검토하였다. 그리고는 성경적 입장에서 기업 경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의 의사결정과 실행에 반영하여야 할 준칙으로서 십계명을 적용하고자 한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실행할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업윤리의 적용과 기업윤리의 실천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십계명의 기업윤리 적용

제1계명은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기업의 사명이나 기업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가치관이나 기업문화, 그리고 기업의 사훈 등도 이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제2계명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이윤이나 수익성 혹은 목적이나 사명, 제품이나 기술 혹은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여야 한다. 기업이나 재물은 그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피조물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인간보다 귀할 수 없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하에 어떠한 잘못이 저질러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크리스찬 기업가는 그의 기업경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보다 신실하여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성실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광고나 포장은 실제와 다른 과장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4계명은 부지런히 일하여야 하나 적절한 휴식이 필요함을 말한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일 자체가 인간의 본분이다. 일을 통하여 보람을 얻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남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지나친 일이나 임금이란 울가미로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지나친 작업량이나 작업시간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즐거움과 힘을 재충전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제5계명은 노인을 존경하고 사회의 건전한 전통을 중시할 것을 말한다. 그들은 육체적인 힘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함으로 자칫 천대를 받거나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인 약자와 소외의 인간도 동일한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수지타산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사명은 섬김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권리를 파괴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기업에서 공급하는 제품은 안전성을 지녀야 하며 인체에 해독을 끼치거나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의식을 혼미케 하는 약품이나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은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환경 파괴나 오염은 자연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작업자의 안전성이나 복리시설을 최대한 구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7계명은 성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취급되지 말 것과 가정은 신성을 파괴하는 여하한 일도 금하고 있다. 특히 기업 내에서의 성 차별이나 성 폭행은 있어서는 안된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뿐 우열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8계명은 거짓된 모든 수단을 배격하고 있다.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하는 모든 행위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지나친 이윤을 얻기 위한 매점 매석의 행위를 하거나 독점임을 기화로 과다한 이윤을 챙겨서는 안된다. 저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도적질에 속하며 겉과 속이 다른 제품도 이에 속한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소득의 적절한 분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임금의 적시 지급, 하청업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공정한 관계 형성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

제9계명은 기업은 정직성과 신실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고객은

기업이 섬겨야 할 직접적인 대상이 되며 그들의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업원, 이해관련 집단, 국가 등에 대해서도 그 정직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제10계명은 탐심을 물리칠 것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탐하여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획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 기업도 대등한 경쟁자로 존경되어야 한다. 한 기업의 존재 이유는 다른 기업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것이 된다. 한 기업의 지나친 시장 점유율은 다른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며 한 기업의 지나친 축재는 종업원이나 기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빈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성경적 기업윤리의 실천

십계명에 따른 기업윤리의 적용은 자칫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찍이 예수는 율법주의자들을 크게 힐책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재해석하였듯 기업윤리 또한 사랑으로 실행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김이 중시된다. 참된 섬김은 사랑 이외의 어떠한 것으로도 동기를 받지 못한다. 예수가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왔듯 참된 섬김은 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다. 기업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의 동기에 의해 남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모든 성경적 윤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한다.

기업윤리의 실천 특히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실천이 기업을 성

공식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성경적 기업윤리는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며 성공을 담보로 하여 실천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을 평가할 때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듯 성공적인 기업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평가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성공적이라 한다면 그의 고난이나 핍박, 굶주림이 오히려 그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기업의 수익이나 이익, 기타 외적인 평가의 척도에 의해 기업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평가 기준과 다른 것이다. 성경에 근거하여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업이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으로 채워지리라고 한 약속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윤리 및 기업윤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하였고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도출을 위해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 개념을 검토하였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율법의 윤리, 사랑의 윤리, 종으로서의 섬김, 청지기 윤리, 하나님 나라 등의 개념이 기업윤리를 전개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친숙한 십계명을 재조명함으로써 이를 기업윤리의 실천에 적용하도록 시도하였다.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제시한 것이므로 이에 내포된 의미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업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이윤 극대화나 기업조직의 목적 지향성, 기업 권력의

무통제성, 대립성의 전제 등은 기업을 비도덕적 기관으로 만드는 잘못된 이념이 된다고 보고 이를 대신한 성경적 이념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인 기업의 사명과 목적, 투입과 산출, 공정과 산출, 분배와 이해자 집단, 공해문제 등을 성경적 윤리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성경적 기업윤리의 실천이라는 측면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기업윤리란 그 성질상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차원으로만 존재할 수 없고 또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십계명이 기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간주하여 이의 기업경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려 하였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율법주의를 배태한 것처럼 자칫 율법주의적 기업윤리로 자리잡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동기로 부여된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는 청지기 정신이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기독교가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만 발전하여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기복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비난과 약점은 교회가 해결하여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된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기관이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인간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의 윤리가 삶의 현장에 깊숙히 침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회의 관심과 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복잡한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가 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경적 원리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룬다고 믿어지는 행동 방향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따르며 기

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행동 방향을 선택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세속적이기 쉬운 기업의 비도덕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여야 할 성경적 윤리의 제시를 시도한 것이다. 이 방면의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적은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규창,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경적 기업윤리를 음미하면서”, 가톨릭교육연구, 효성여대 가톨릭교육연구소, 1991, pp.179-218.
2. 김식현, 「경영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 p.53.
3. 김중기, “성경윤리”, 박봉배 외, 「기독교 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p.82-125.
4. 대천덕,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0.
5. 박봉배, “그리스도인의 윤리”, 박봉배 외, 「기독교 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12.
6. 신유근, 「기업과 사회」, 경문사, 1986, pp.173-178.
7. 신유근, “기업윤리와 경영교육”, 한국경영학회 편, 1991년도 추계 특별연구발표논문집, 「기업윤리와 경영교육」, pp.25-27.
8. 조상국 역, 「옥스포드 선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1.
9. 한국 경영자 총협회, 「경영 혁신을 위한 기업윤리」, 1992.
10. 한국 경영학회 편저, 「한국의 기업윤리- 실상과 과제」, 세경사, 1992.
11. 한정화, “성경적 기업윤리”, 제7회 기독교학술발표회, pp.44-59.
12. Barry, V., *Moral Issues in Business*, Belmont, Calif : Wordsworth Publishing Co., 1983, p.12.
13. Bartels(ed.), *Ethics in Business*, Columbus:Ohio State University, 1963, p.116.
14. Blanchard, Kenneth & Norman Vincent Peale, *The Power of Ethical Management*, (조규하 역, 「윤리적 경영」, 시사영어사, 1988.)
15. Donaldson, Thomas, *Corporations and Morality*, 1982,

(유장선 역, 「기업윤리」, 법문사, 1985.)

16. Drucker, Peter, *The Practice of Management*, 1954, P.341.

17. Epsein, E.M., "Dimensions of Corporate Power", Pt.1 & pt.2,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16, No.2, No.4, 1973 Winter, 1974 Summer.

18. Frankena, William K.,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19. Frederick, William C. et al., *Business & Society*, McGraw-Hill, 1988, p.39.

20. Friedman, Milt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1970., Donaldson, 「기업윤리」에서 재인용, p.114.

21. Goodpaster, K.E., "Business Ethics: The Field and the Course", in W.M. Hoffman, J.M. Moore and D.A. Fedo (eds.), *Corporate Government and Institutionalizing Ethics*, Toronto: Lexington Books, 1983, p.289.

22. Grounds, Vernon C. "responsibility and subjectivity: Applying Biblical Principles in Business", in Richard C. Chewing (eds.), *Biblical Principles & Economics*, 1989, Navpress, p.129.

23. Hay, Donald A., *Economics Today*, Appolos, 1989, pp.62-63.

24. Hay, Donald,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Socialism*, (김정식 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0.)

25. Heilbroner, R. L., *In the Name of Profit*, Doubleday, 1972, chap 6.

26. Hoffman, W. Michael, Jenifer Mills Moore, *Business Ethics*, McGraw-Hill, 1990, pp.14-15.

27. Johnson, Luke T., *Sharing Possessions*, (최태영 역, 「소유와 분배」, 대장간, 1991.)

28. Kantzer, Kenneth S. "God Intends His Precepts to Transform Society", in Rechard C. Chewing (eds.),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pp.31-32.

29. Levitt, Theodore, "The Dangers of Social Responsibilities", *Harvard Business Review*, Sept.- Oct. 1958, pp.41-49.

30. Longenecker, Rechard N. "O. Tempa! O Mores! - On Being a Cristian in Business Today", in Richard C. Chewing(eds.), *Biblical Principles & Economics*, 1989, Navpress, p.260.

31. Niebuhr, H. Rechard,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Harper and Row, 1963.

32. Rush, Myron,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임창일 역, 「성경적 경영방법」, 생명의 말씀사, 1986.)

33. Sheldon, Oliver, *The Philosophy of Management*, (고전형 저, 오종석 역, 「기업의 목적과 책임」, 삼영사, 1982, 139-140에서 재인용.

34. Tam, Stanley, *God Owns My Business*, (이항수 역,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 기성출판부, 1991.)

35. Tamasy, Robert J. and Colonel Nimrod McNair, "An absolute system of ethics", in Tamasy Robert J., ed.,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Tennessee : Wolgemuth
& Hyatt, Publishers, Ins, pp.29-33.